

낙후된 탕비실 문화, 세련된 ‘오피스 카페테리아’ 구독 혁신

3040 벤처 CEO 열전

스프링온워드 정새봄 대표

정새봄 스프링온워드 대표는 B2B 구독서비스로 과거 낙후된 탕비실 문화를 세련된 오피스 카페테리아로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야놀자 CMO·사업개발’, ‘넥스트매치(야만다) 이사’, ‘패스트트랙아시아’ ‘아이디인큐’ 등을 두루 거치며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2019년 커피 유통 스타트업 스프링온워드를 창업, 이듬해 커피 구독 및 커피 머신 렌탈 서비스 원두데일리를 론칭했다.

원두데일리는 ‘사무실에서 마시는 유명 카페의 커피’라는 컨셉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고 SNS상에서 회자되는 ‘프린츠’ ‘커피리브레’ ‘테일러커피’ ‘빈브라더스’ 등 약 20여개의 로스터리 카페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직장인들 대다수가 식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유명 카페의 커피를 사

야만다, 야놀자 등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주도
커피 구독·머신렌탈 서비스 ‘원두데일리’ 론칭

‘사무실에서 마시는 유명 카페 커피’ 콘셉트
빈브라더스 등 20개 로스터리 카페 파트너십

“맛없는 사무실커피 아닌 만족도 높은 기업복지로”



스프링온워드 정새봄 대표



커피복지 맛집 인증 포스터

로, 원두데일리를 이용하는 회원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명함만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커피 구독 서비스 브랜드 원두데일리와 B2E 전용몰 원두랜드의 시너지를 통해 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개개인의 커피 취향을 공략, 세분화된 고객 타겟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내 카페테리아는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원두데일리는 커피를 통해 임직원이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무실에서 마실 수 있게 되면 직장인은 커피값을 아낄 수 있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커피는 사무실에서 빠질 수 없는 비품으로, 소비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원두데일리는 사무실 커피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매주 새로운 원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맛과 향으로 로스팅된 원두를 번갈아가며 배송해주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몰랐던 자신의 커피 취향을 찾을 수 있다. 여

에 스위스 명품 커피 머신 브랜드 유라를 비롯해 프랑케, 일리 등 원두의 맛을 최상으로 추출해 주는 커피 머신 대여도 가능하다.

2020년 5월 론칭한 원두데일리는 매년 3배 이상 성장 중이다. 원두데일리 누적 가입 고객사는 전년 6월 말 대비 올해 256% 증가했으며, 대기업 군도동 기간 311% 늘었다. 전체 가입자수는 1000여개로 집계된다.

정 대표는 “원두데일리는 남편의 커피 사업을 도우려고 ‘야놀자’에 있을 때

생각해본 구독모델이기도 하다”며 “검증된 맛과 편의성을 제공하면 구독경제의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여러 우려곡절을 거쳐서 지금의 원두데일리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B2E 전용 쇼핑몰인 원두랜드를 오픈했다. ‘기업과 직원 사이(Business to Employee)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B2E는 사내복지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맛있는 원두가 모여있는 세상이란 키 메시지를 가진 원두랜드는 회원제 전용 쇼핑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 “대환대출 활성화, 車보험 부담 완화”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민생상황 점검, 3고 관련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경제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가중된 민생 부담 완화 대책이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조치에 나선 데 따른 민생 부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며 “특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

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라며 “당정을 통해 안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엔 추가적으로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12조원 규모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국회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진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중대법에도 산재 여전... 사망자수 되레 늘어

고용노동부 3분기 누적 재해조사 사망사고 483건, 사망자 510명 집계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 이 중 사망자는 총 51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는 492건으로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502명으로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돼 작년과 비교한 사망 관련 통계는 공식적이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업종·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명)〉

/고용노동부

| 구분 | 전업종 | | 건설업 | | 제조업 | | 기타업종 | |
|------|--------|--------|--------|--------|--------|--------|--------|--------|
|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사망사고 | 303 | 180 | 169 | 74 | 69 | 67 | 65 | 39 |
| 사망자 | 308 | 202 | 171 | 82 | 69 | 74 | 68 | 45 |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수는 이 기간 건설업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순이었다.

사망사고는 추락 204명, 끼임 78명 등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도 202명으로 37.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자수가 늘어나고, 법 적용 대상 뿐 아니라 적용이 미뤄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많아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 취급

최근 치솟는 금리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상호금융 조합에서도 오는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대출 특약이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택

담보대출’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 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입비용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다.

주담대 특약 가입 차주는 1년간 금리 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